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가정 연계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교사용
참고 자료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가정 연계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교사용
참고 자료

목차

일러두기 03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06

교사를 위한 발달 선별 이해와 활용

2. 양육지원, 교사는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17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양육지원 지침

내용 및 구성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교사용 참고 자료) -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가정 연계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에는 0~5세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가정과 연계해 지원하기 위해 교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추려 담았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발달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맞추어 가정과 연계한 발달 지원과 양육 실천을 안내하도록 지원합니다.

영유아기에는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자조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차가 두드러지며, 양육자의 세심한 관찰과 반응이 아이의 성장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이에 이 자료는 영유아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일과 속에서 아이의 발달을 살피고, 이를 가정과 소통하여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육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료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1장.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교사를 위한 발달 선별 이해와 활용</p>	<p>2장. 양육 지원, 교사는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양육 지원 지침</p>
<p>영유아 발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느린 발달’의 징후를 살펴봅니다. 발달선별검사의 의미와 결과 해석 방법을 안내하며, 상황별 대화 예시를 통해 아이의 발달 문제를 양육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p>	<p>교사가 가정이 아이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돕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지침을 안내합니다. 특히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환경 구성, 놀이, 훈육, 상호작용 등 일상 속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중심으로, 교사가 가정을 지원할 때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제시합니다.</p>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 필요한 주제부터 자유롭게!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가는 주제를 따라 편하게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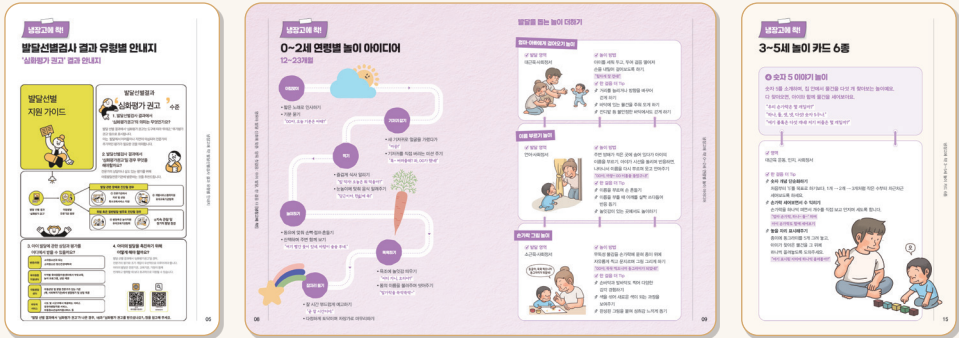
예를 들어 아이의 발달 신호나 가정과의 소통 방법이 궁금하다면 1장을, 가정에 아이의 발달을 지원하는 실천 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싶다면 2장을 먼저 참고해보세요. 또한 목차에서 보고 싶은 장을 누르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필요한 내용을 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 일상 속 실천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 및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사례와 상황별로 가정과 소통하는 대화 예시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6컷 만화와 자주 묻는 질문에는 교사가 일과 중에 자주 마주하는 상황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양육자 상담 등 가정과 연계할 때 활용해보세요. 필요한 내용은 출력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활용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 별첨: 냉장고에 척! 시리즈

‘냉장고에 척!’ 시리즈는 가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결과 안내지, 연령별 놀이, 놀이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가 가정에 안내하거나 부모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용 자료와 영상도 함께!

양육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발달·양육 관련 정보를 안내하거나 관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양육자용 자료인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양육자용)의 ‘아이 발달 이끄는 똑똑한 정보(14~16장)’를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자료는 집필진의 강의 영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글로, 때로는 영상으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방법을 찾아 배움의 즐거움을 확장해보세요.

핵심영상 바로보기



교사라면 꼭!
발달 선별부터 양육자 상담까지

교사라면 꼭!
가정과 함께 아이 성장 이끌기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교사를 위한 발달 선별 이해와 활용





교사는 아이들의 발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또래와 비슷하게 발달하지만, 때로는 다른 발달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달선별검사는 발달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발달 선별의 중요성과 교실에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를 양육자와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달 선별의 이해

① 발달 선별이란 무엇인가요?

1) 발달 선별의 목적

발달 선별은 아이의 발달 상태를 살펴, 또래보다 늦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기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검사나 발달 지원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2) 발달 선별이 중요한 이유

많은 나라에서 발달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에 발달 선별이 포함되어, 모든 0~5세 아이에게 검진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자가 질문지에 응답하지만, 기관에서는 교사가 직접 실시하여 교실에서 나타나는 발달 모습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교사가 알아야 할 발달 선별의 특징

발달 선별은 의료진이 아니라 양육자나 교사가 아이를 관찰해 작성하는 검사입니다. 도구는 간단하고 명확하며,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므로, 결과만으로 발달 지연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달 선별의 목적은 아이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Q&A로 알아보는 양육자 작성 선별 도구

양육자가 작성하는 발달선별검사 결과, 신뢰할 수 있나요?



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영유아 발달 선별 도구는 양육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자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문제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실제 진단에서 발달 문제가 확인된 비율이 약 9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양육자의 관찰과 염려가 매우 신뢰할 만한 조기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양육자는 아이의 발달과 행동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의 없이 작성하거나 '잘 모르겠음'을 많이 선택하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와 충분히 상호작용 해왔다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교사가 함께 작성했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교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어려움을 관찰했지만 양육자는 염려가 없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상황에서 아이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염려가 있지만 기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일상 구조나 양육 방식 등을 나누어보며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아이의 발달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방향을 논의해보세요.

출처: Chul Hoon Jang, Seong Woo Kim, Ha Ra Jeon, Da Wa Jung, Han Eol Cho, Jiyong Kim, Jang Woo Lee, Clinical Usefulnes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K-DST) for Developmental Delays,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2019;43(4):490-496.

② 교사에게 발달 선별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교사는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행동, 언어, 감정 표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일상적인 반응을 꾸준히 관찰하기 때문에 발달의 흐름이나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 발달 선별은 교사의 관찰을 '근거 있는 판단'으로 바꿔줍니다.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발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양육자와 공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달 선별 도구는 이러한 관찰을 구조화하여, 아이가 또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하는지, 전문 평가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3) 양육자와 신뢰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발달은 민감한 주제지만, 선별 결과는 교사의 설명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구체적인 결과에 기반해 논의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도 설득력 있게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 더

발달 이정표로 볼까, 발달 선별 도구로 확인할까?

✓ 발달 이정표는 관찰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교사는 일상에서 아이의 발달을 꾸준히 관찰합니다. 이때 발달 이정표는 연령별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발달 행동을 제시해주므로 '지금 시기에는 어떤 행동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별 관찰 기록을 정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달 이정표만으로는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발달 이정표는 자료마다 제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는 50%의 영유아가 도달한 시점을, 또 어떤 자료는 75% 이상 영유아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아이가 특정 항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발달 지연이라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 발달 선별 도구로 아이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이 시기라는데 우리 반 아이는 이런 행동이 안 보이네?" 하고 발달 이정표에서 빠진 항목이 여러 개라면, 발달 선별 도구를 활용해 발달 상태를 구조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 선별 도구는 영역별 발달 상태를 점수화하여, 아이가 또래 수준에 있는지, 추가 관찰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발달 이정표는 '관찰용!', 발달 선별 도구는 '확인용'!

③ 무엇을 선별할 수 있나요?

1) 전반적 발달 영역

전반적 발달 선별은 여러 발달 영역을 나누어 관찰하되, 이러한 발달 상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각 영역 간의 연결성과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아이의 발달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전반적 발달 선별의 개념

전반적 발달 선별은 **아이의 연령에 맞게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근육 운동(걷기, 뛰기 등), 소근육 운동(쥐기, 끼우기 등), 인지(생각하고 문제 해결하기), 언어(이해와 표현), 사회정서(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 맺기), 자조(스스로 먹고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 등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영역은 따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은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발달하는 사회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근육이 발달하면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해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사는 한 가지 영역만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영역	발달내용
 <p>대근육운동</p>	<p>팔과 다리, 고개, 몸통 등을 움직이는 행동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공 던지기 등</p>
 <p>소근육운동</p>	<p>팔과 손, 손가락을 사용하는 미세한 운동, 사물 조작 능력 연필 잡기, 블록 쌓기, 가위로 오리기 등</p>
 <p>인지</p>	<p>문제해결·사고 능력 수 개념, 도형 알기, 사물의 용도 이해 등</p>
 <p>언어</p>	<p>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응달이, 단어 또는 문장 말하기 등</p>
 <p>사회·정서</p>	<p>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정서 조절 눈 맞춤, 공동주의, 모방, 인사하기, 놀이하기 등</p>
 <p>자조</p>	<p>환경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용변 처리, 옷 입기, 식사하기, 정리하기 등</p>

(2) 발달 선별 도구의 예

①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는 국가에서 개발한 기본 발달선별 도구이며, 국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생후 9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6회(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에 걸쳐 정기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의 여섯 가지 주요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며, 작성 시간은 10~15분 정도입니다. 검사 결과는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의 네 단계로 산출되고,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결과지에는 '빠른 수준'과 '또래 수준'을 통합해 '양호'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실제로 받는 결과는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의 세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 Korean Screening Index for Early Development)는 생후 12개월부터 만 5세까지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확인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이 검사는 **부모용(K-SIED:P)**과 **교사용(K-SIED:T)**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과 기관에서의 관찰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용 도구는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를 자연스럽게 관찰하며,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이의 발달상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가 영역은 **대근육·소근육 운동, 인지, 수용·표현 언어, 사회·정서, 자조**로 구분되며, 교사는 이를 등·하원, 대·소집단 활동, 자유 놀이, 바깥 놀이, 급·간식, 낮잠·휴식, 전이(손 씻기, 배변, 기타)와 같은 일과 속에서 관찰해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는 '**양호군**', '**관심군**', '**주의군**'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주의군'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상담 및 추가 평가로 연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④ 교사가 직접 하는 발달 선별, 단계별로 시작해보세요.

1단계: 발달 선별 도구 선택

이 자료에서는 세 가지 발달 선별 도구를 소개합니다. 전반적인 발달을 확인하는 도구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활용되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와 일과 중심 발달 선별 도구인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가 있습니다. 또 정서와 사회적 행동 발달을 확인하는 ‘한국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선별도구(K-EISE)’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양육자가 작성하는 도구이므로, 교사는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 결과지를 확인하거나 양육자 상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의 발달에 변화가 있거나, 기관 차원에서 추가 발달 선별이 필요하다면, 교사용 K-SIE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발달 선별 범위 설정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달 선별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편적 선별** 학기 초에 모든 아이에게 실시해 반 전체의 발달을 확인합니다.
- ② **부분(개별) 선별**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아이만 실시합니다.

3단계: 발달선별검사 실행

발달 선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① **작성 전 준비** 사용 가이드를 숙지하거나 간단한 연수를 받으면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② **실시 시기** 아이가 기관에 적응하고 안정된 시점에 실시합니다.
- ③ **평소 모습 반영** 특별히 좋았던 날이나 힘들었던 날이 아닌, 평소 관찰된 일상적 모습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④ **교사 간 협력** 여러 교사가 함께 관찰했다면, 의견을 나누어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 ⑤ **양육자와 협력** 양육자가 함께 작성하는 도구는 사전 안내와 동의를 거쳐 가정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반적 발달 선별		사회정서·행동
① K-DST	② K-SIED	③ K-E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 • 양육자가 작성 • 교사는 제출된 결과지 확인 또는 양육자 상담을 통해 결과 확인 • https://www.nhis.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 교사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 교사가 작성

4단계: 결과 해석

대부분의 발달 선별 도구는 결과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명칭은 도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의 구분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 한국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선별도구(K-EISE)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괄호 안에 병기하였습니다.

(1) 양호(양호군, 일반발달수준 등)

- ✓ 아이가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 특별한 염려가 없다면 추가적인 평가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정기적인 발달선별검사로 성장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주시면 됩니다.

(2) 추적검사 요망(관심군, 주의관찰필요 등)

- ✓ 일부 영역에서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 응답한 항목 중 달성되지 않은 부분이나 염려되는 항목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 ✓ 해당 영역의 발달을 돕는 놀이나 상호작용을 일상에서 자주 시도해주세요.
- ✓ 약 2~3개월 이내 재검사를 진행하여 변화를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심화평가 권고(주의군, 추가평가권고 등)

- ✓ 발달 수준이 또래보다 낮게 나타나, 전문가의 정밀 평가가 권장됩니다.
- ✓ 발달 선별은 진단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더 정확한 평가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발달선별검사 결과를 양육자와 상담하고 다음 행동 계획

교사는 발달 선별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양육자에게 안내하고, 각 결과에 따라 가정과 기관에서 실천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음 표는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이며, 교실 상황과 양육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다음 QR 코드에 제시된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별 안내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별 안내지		
① 양호	② 추적검사 요망	③ 심화평가 권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설명을 위한 양육자 상담 가이드

순서/포인트	내용에 대한 발화 예시	자료
1. 인사 및 아이스 브레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감을 줄이고 발달선별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안내 선별이 진단과 다름을 강조하면서도 이 결과가 중요한 단서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 	<p>① “안녕하세요. ○○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오늘은 아이의 발달선별검사 결과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p> <p>② “이런 발달선별검사는 원에서 필요할 때 진행하기도 하고, 아이의 발달 흐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에요. 병원에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처럼 아이의 발달을 한 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p> <p>③ “이번 결과는 진단이 아니라, ‘지금 ○○이에게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할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발달선별검사 결과
2. 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고, 양육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함 판단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 	
<p>(1) 양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언급 현재 양육 방식이 긍정적임을 제시 	<p>① “○○이는 또래 수준에 잘 맞춰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p> <p>②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p> <p>③ “지금처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상에서 아이와 상호작용해주세요.”</p>	발달선별검사 결과 ‘양호’ 안내지
<p>(2) 추적검사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불안을 줄이고, 양육자의 실천 동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 	<p>① “○○이는 ○○ 영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언어 영역)에서 또래보다 조금 느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걱정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p> <p>② “2~3개월 이후 다시 한번 발달 선별을 해서 결과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p> <p>놀이 제안 “(언어 활동)이 많이 포함된 놀이를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아요.”</p>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안내지
<p>(3) 심화평가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이 아님을 제시하여 걱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명히 설명 	<p>① “○○이는 ○○영역에서 또래보다 다소 느린 모습이 관찰되어, 아이의 발달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어요.”</p> <p>② “조기에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면, 아이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p>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안내지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과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2

양육지원, 교사는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양육지원 지침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양육 역량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의 양육 역량을 키우는데 교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부모-아이간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의 길을 걷어가는 가족에게 선생님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양육 역량이 커질수록 기관에서의 교육 효과도 함께 높아집니다.

교사는 가족이 효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교사가 가족을 지원할 때

무엇을 점검하고 안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좋은 양육환경 안내하기

1 아이의 흥미와 발달에 맞는 놀잇감을 안내해요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스스로 선택하며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발달이 느린 아이는 또래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양육자가 놀잇감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교사는 교실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과 고유한 흥미에 맞는 놀잇감 아이디어를 양육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중에는 특정한 소리, 빛, 촉감 등 감각적 자극에 특히 관심을 보이거나 좋아하는 활동에 오래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손전등이나 부드러운 천 같은 일상용품도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주세요.

2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만들도록 안내해요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스마트폰 대신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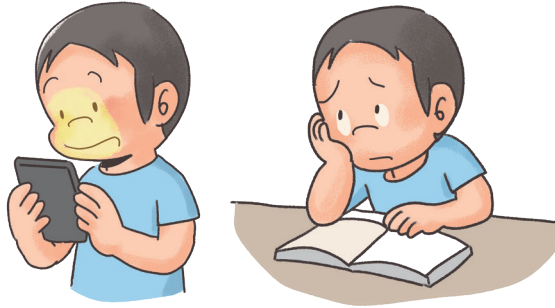
어린이에게 미디어 노출이 잦으면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처럼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양육자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아이와 상호작용 하는 시간을 줄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점을 양육자에게 안내하고, 아이와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세우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디지털 디톡스의 날’을 정해 온 가족이 디지털 기기 없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팝콘브레인과 퍼빙(phubbing)

✓ 팝콘브레인이란 무엇인가요?

팝콘처럼 툭툭 튀는 디지털의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가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끼고 단순한 현실의 자극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 지연, 주의력 결핍,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저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책 읽기, 놀이,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 집중력이 감소하여 학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기다리는 상황 등에서 짜증, 불안,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퍼빙이란 무엇인가요?

‘퍼빙(Phubbing)’은 ‘Phone(전화기)’과 ‘Snubbing(무시하다)’을 합친 말이며,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대화를 소홀히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양육자가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면 아이의 시선이나 말, 몸짓 같은 상호작용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의 애착 형성이나 의사소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퍼빙 관련
유튜브 영상

자녀-양육자 간 상호작용 지원하기

1 애착과 정서 조절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을 지원해요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일상 속 짧은 놀이와 따뜻한 포옹과 공감으로 안정적인 애착과 발달의 밑거름을 만들어주세요.”

영유아기는 따뜻한 신체 접촉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이므로 양육자가 이런 따뜻한 접촉으로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안아주기, 쓰다듬기 등 따뜻한 신체 접촉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애착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하게 안아주기’와 같이 일정한 루틴으로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10분 함께 놀기’처럼, 양육자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을 활용하는 즐거운 놀이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자가 아이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읽어주며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감정 관련 활동을 한 후에 놀이 방법이나 대화 주제를 공유하면 교육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을 지원해요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아이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반응해주세요. 양육자와 즐겁게 나누는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발달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아이의 의사소통 발달을 도우려면 발달단계에 맞는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양육자가 일상 속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① 신생아 단계

울음, 표정, 웅얼이 같은 아이의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격려합니다.

② 비언어적 의사소통 단계(의사소통 의도는 있으나 언어 표현이 어려운 단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표정이나 몸짓 등으로 의도를 표현한다면 아이의 마음을 읽고 “물 마시고 싶어요.”처럼 말로 표현해주도록 안내합니다.

③ 한 단어 표현 단계(한 단어로 여러 의미를 표현하는 단계)

아이의 말을 평가하거나 고쳐주기보다 의도를 공감하고, 아이가 “뽕뽕” 하고 말하면 “응, 뽕뽕 자동차가 쌩 가네.”와 같이 말을 확장해주도록 돕습니다.

④ 두 단어 연결 단계(단어를 연결해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

아이가 “멍멍, 밥!”과 같이 짧게 말할 때 “멍멍이가 밥을 먹네.”처럼 더 완전하고 긴 문장으로 반응해 자연스럽게 시범을 보이도록 안내합니다.

⑤ 문장 발화 단계(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

아이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존중하여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진심으로 반응해주며 대화를 나누도록 격려합니다.

이처럼 교사는 각 단계에 맞는 핵심 전략을 양육자가 실생활에서 꾸준히 적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행동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을 지원해요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에 숨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쳐주세요.”

최근에는 아이의 도전행동을 멈추게 하는 단기적인 접근보다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표현 방법을 가르쳐 장기적인 변화를 돕는 접근이 강조됩니다. 교사는 훈육이 ‘벌’이 아니라 ‘가르침’의 과정임을 안내하며, 아이의 행동을 ‘문제’가 아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소통의 신호’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려면, 먼저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양육자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로 표현이 어렵거나 감정 조절이 힘들 때,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감각이 예민할 때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양육자의 반응 방식(너무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태도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양육자와 함께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도 방법을 공유하여 도전행동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발달 촉진 방법 안내하기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아이의 발달은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고 선택하며 성공하는 일상의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라납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의 양육자는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치료나 사교육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이때 교사는 가정이 아이가 발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모든 일상 경험이 배움의 기회가 됨을 양육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교사'처럼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아이가 직접 경험하며 배울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양육자에게 안내할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격려해주세요.
- ②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활용하세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즐거워할 때 배움의 효과는 가장 큽니다.
- ③ 선택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고르는 경험을 함으로써 주도성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간단한 선택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④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거나 쉽게 조절하여 '해냈다'는 경험을 선물해주세요.
- ⑤ 가족을 돕도록 역할을 주세요. 서투러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소속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양육자의 심리적 지원 및 가족 지원 제공하기

1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요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아이의 성장은 양육자의 마음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는 완벽한 양육자보다, 행복한 양육자가 더 큰 선물입니다.”

양육자가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아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교사는 양육자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자신을 먼저 돌볼 것’을 격려하기 양육자 자신의 마음 건강이 좋은 양육의 첫걸음을 안내합니다.
- ②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결하기 양육자의 힘든 점에 귀 기울이고, 상담센터나 지원 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 ③ ‘완벽함’보다는 ‘건강함’을 강조하기 ‘완벽한 양육자’가 되기보다는 ‘건강한 나’로 서는 것이 아이에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④ 과도한 치료 대신 ‘균형’을 강조하기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치료를 시도하다가 양육자가 먼저 지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충분한 놀이와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가족 기능을 향상하도록 지원해요



가족에게 전할 양육 포인트

“부부, 형제자매 모두가 균형 있게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족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발달환경입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를 양육할 때는 가정의 모든 생활이 그 아이 중심으로 치우쳐서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는 데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행복과 균형이 아이에게 최고의 발달환경임을 양육자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교사는 가족 관계를 돌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부 관계 지원하기 ‘좋은 배우자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 ② 형제자매 균형 있게 돌보기 발달이 느린 자녀에게만 관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과도한 돌봄 책임감을 지우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 ③ 지역사회 자원 연결하기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의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안내합니다.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교사용 참고 자료]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가정 연계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총괄 및 기획

김지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하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집필진

이수정 위덕대학교 교수

허계형 총신대학교 교수

김지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하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협력관

김성근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과장

박현정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교육연구관

김주형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교육연구사

전향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

김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처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부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341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50

삽 화 박초희 작가

디자인 더디앤씨(thednc)

본 부모교육 자료는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수탁과제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제작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실 때에는 아래 서지 정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25).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교사용 참고 자료) -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가정 연계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대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본 자료의 PDF 파일은 누리과정 포털(www.i-nuri.go.kr)에서 전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자료 개발을 위해 내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